

# 업계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방향 연구

이재호\*, 김영현\*, 한재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e-mail: [engine@kict.re.kr](mailto:engine@kict.re.kr), [covolt@kict.re.kr](mailto:covolt@kict.re.kr), [jghan@kict.re.kr](mailto:jghan@kict.re.kr)

## An Improvement Direction Study of Industrial Survey and Analysis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Tendering System in Construction Engineering

Jaeho Lee\*, Young Hyun Kim\*\*, Jae Goo Han\*

\*Dept. of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 요약

현재 건설 분야의 공공입찰제도 중의 하나로 운영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기본설계 15억 이상, 실시설계 25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 이상으로 기존의 기술제안서 평가(Technical Proposal, TP) 영역이 대체되었다. 그러나, 중심제가 TP의 개정으로 운영 됨에도 TP에서 제시된 고난이도 대상 시설품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 발주 금액 영역을 기준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른 입찰제도에 비해 입찰에 많은 비용과 업무량을 투입하게 되었다. 이에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중심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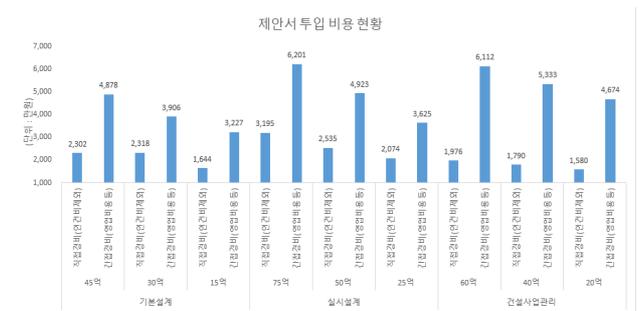
기술평가 중심의 입·낙찰 기준 마련 및 적정 대가 확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중심제[1]를 도입(2019.3. 시행)하여 운영 중이나, 중심제 적용기준이 단순 금액으로 규정되고, 기준 금액 또한 낮아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단순 공사까지 중심제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및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시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확보 및 해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술적 이행능력 및 종합평가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가 상실되고 저가투찰(60%)을 유도하는 등 업계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2. 업계 설문 조사 분석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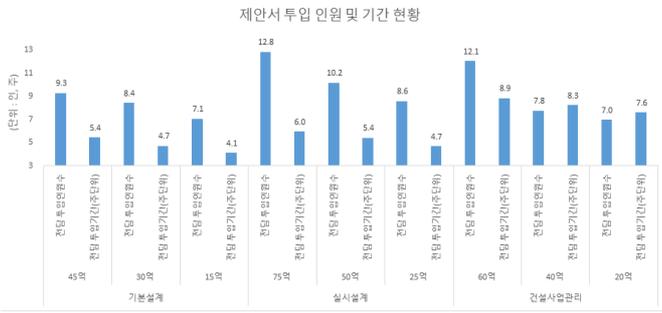
건설엔지니어링 업계(122부 회수)의 중심제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시각에서의 중심제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과반이상 응답에서 제안서의 성과품이 질적 향상 대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인력투입이 과다하다고 응답하였다. 제안서를 위한 비용 및 인력 투입은 발주금액에 비례하게 나타나며,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보다 간접비가 평균 2배 정도 높았다.



[그림 1] 제안서 투입 비용 현황

투입 인원 및 기간의 경우, 제안서를 위한 투입 인원 및 기간은 발주금액에 비례하게 나타나며, 최소 7명에 4주 이상으로 제안서 입찰에 투입, 실시설계는 인력투입, 건설사업관리는 기간투입이 높게 파악되었다. 최대로는 건설사업관리의 60억 기준에서 12명에 8주 이상으로 투입 인원과 기간이 파악되었다.



[그림 2] 제안서 투입 인원 및 기간 현황

발주금액이 높을수록 대비 인력과 기간의 투입이 비례하였으나, 금액이 높을수록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최소 발주금액(기본 15억, 실시 25억, 건설사업 20억) 기준, 준비하는 비용을 고정비로 고려하여 발주금액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림 3] 최소 기준 금액 대비 투입인원 및 기간 차이

인력과 기간의 차이는 5.1명(73%)에서 최대 1.6주(18%)로 증가하였고, 기간은 한정적이고 업무량을 증대해서 투입하였다.



[그림 2-4] 최소 기준 금액 대비 투입비용 차이

비용 차이는 발주금액에 비례하여 높은 비용이 투입되며, 직접경비는 1,121만원(54%), 간접비는 2,576만원(71%)로 증가하였다. 발주금액이 높을수록 비용 및 인력, 기간에서 인력과 영업비용에 집중되어 투입되었다. 중심제 기준금액 상향 의견은, 평균 기본설계 27.3억 이상, 실시설계 42.3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56.9억 이상을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TP와 동일한 난이도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64명이 찬성, 13명이 반대로

난이도 도입이 중심제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심제 폐지 및 기존 PQ, TP, SOQ평가 사용에 대해 46명이 동의 27명이 반대로 응답하여 다수가 중심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3. 결론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기초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국민들이 사용하는 건설목적물의 안전과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운영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적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보장하는 것만이 중심제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며, 글로벌엔지니어링 업계에 진출하는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중심제의 문제점으로, 낙찰률이 최저가 낙찰률보다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평가에서 투찰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넓어진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세부 공종별 단가의 심사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사기준으로 저가에 낙찰을 받고자 함이 기술력 있는 업체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 수행 능력의 평가 시, 실적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면서 기술력 강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경우도 예측된다.

입찰제도의 구조적으로 난이도를 반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본설계 30억 이상의 금액상향에 적극적이다. 업계 및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평가가 신중히 들어가지 않는 기본 설계 단계 제외나 평가 금액 상향에 대한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 구간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였을 경우와 입찰 제도 평가에 대한 보완 부분에 대해 고려하여 방향을 제시 한다.

###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3월, 2019년.